

예비 부모의 출산친화적 가치관 형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나유미¹⁾ 김미경²⁾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가까운 미래에 결혼을 하고 자녀를 갖게 될 예비 부모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출산친화적 가치관 형성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해 봄으로써 결혼관과 자녀관, 가족관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는 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에 소재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56명이며 실험집단에는 가치관 교육 프로그램을, 비교집단에는 가정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으며 통제집단에는 아무런 프로그램도 실시하지 않았다. 출산친화적 가치관 형성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연구도구는 김예리(2009)의 결혼관 척도, 김미숙(2010)의 자녀관 척도, 이삼식·김안나·도세록·윤홍식 외(2006)의 가족관 척도를 수정·보완하고 전문가 4인이 협의하여 내용타당도와 신뢰도를 구한 후에 사용하였다.

출산친화적 가치관 형성 교육 프로그램은 주 1회 1시간 30분씩 총 10회를 실시하였으며 출산친화적 가치관 형성 교육 프로그램이 결혼관, 자녀관 그리고 가족관에 미치는 효과는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해 SPSS 18.0을 사용하여 일원변량분석(ANOVA)과 공변량분석(ANCOVA)을 실시하였으며 사후 검증은 Tukey로 처리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출산친화적 가치관 형성 교육 프로그램은 결혼관과 가족관에서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출산친화적 가치관 형성 교육 프로그램은 예비 부모들의 긍정적 자녀관, 긍정적 자녀관 중 개인적 측면, 부정적 자녀관 중 사회적 측면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출산친화적 가치관 형성 교육 프로그램은 사회적, 경제적 여건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건강한 부모의 가치와 역할을 인식할 수 있도록 영향을 주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주제어: 예비 부모, 출산친화적 가치관, 교육프로그램

* 본 연구는 2012년 충신대학교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이며, 2012년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추계 학술대회에서 발표되었음.

1) 충신대학교 강사

2) 충신대학교 교수

I. 서론 및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감소 속도를 보임으로써 이에 대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대책마련이 주요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1960년대에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6.0명으로 매우 높았으나 1983년 2.1명, 2000년 1.47명, 2007년에는 1.26명, 2008년에는 1.19명, 2009년에는 1.15명으로 급격히 하락하였으며, 2011년 출산율은 1.24명으로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의 평균 합계출산율인 1.6명보다 낮은 세계 최저 수준이다(통계청, 2012). 저출산 현상의 지속은 인구 규모의 감소 뿐 아니라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불균형 및 고령화로 인해 기존의 인구 구조에 맞게 형성된 교육·의료·복지 서비스·노동 및 산업 체계의 부조화를 촉발시켜 사회 전체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고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로 잠재 성장률 저하, 연금부담의 증가, 이로 인한 국가 재정의 악화 등의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이경숙·정석진·박진아·신의진, 2009).

저출산 관련 연구들이 밝힌 저출산의 원인은 가족계획 사업, 초혼연령의 상승 및 미혼인구의 증가에 따른 인구학적 요인과 자녀양육과 교육비의 부담, 여성의 자아육구와 사회참여 증대,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에 따른 사회경제적 요인, 결혼관과 자녀관의 변화에 따른 가치관적 요인으로 분류할 수 있다(남기동, 2005; 이삼식, 2005; 이문옥, 2006; 황지영, 2006; 문세정, 2007; 위점애, 2007; 신호영, 2009). 즉 결혼이나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출산에 대한 사회·경제적 부담이 크므로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없을 때는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것이다. 2009년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 조사(이삼식·최효진·오영희·서문희 외, 2009)에 따르면 22~44세 미혼남성의 23.4%, 미혼여성의 16.9%만이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응답하는 데 그쳐 결혼이 더 이상 의무나 숙명이 아닌 선택이라는 태도가 일반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자녀출산 의향 중 자녀를 반드시 가지고 싶다는 응답은 미혼남성 24.2%, 미혼여성 24.1%로 2005년 조사 시의 미혼남성 54.4%와 미혼여성 42.1%보다 현격하게 낮아졌으며 이와 같이 자녀 출산의향이 약화되고 있다는 점은 향후에도 출산율이 낮은 수준에서 지속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결혼과 자녀, 그리고 가족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는 단순한 개인의 취향이나 선택의 문제로 인한 일시적이고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의 여러 요소가 장기간에 걸쳐 복합적으로 작용함에 따라 사회구성원의 태도와 생각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가치관이란 사람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세상에서 무엇을 판단할 때 정의적 및 인지적 요소를 종합하는 평가적 신념으로 개인들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말해주는 표준이며(김용미, 2008) 넓은 의미로는 삶, 좁은 의미로는 행동의 선택, 동기를 유발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결혼이나 출산에 대한 가치관도 결국 이에 대한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는가를 의미하는 것이다(박영화, 2010). 본 연구에서는 출산친화적 가치관을 결혼과 자녀, 가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뿐 아니라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가정과 부모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행동할 수 있는 좁은 의미의 가치 형성으로 정의하였으며 그 하위 요인은 결혼관, 자녀관, 가족관이다.

우리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는 초저출산 현상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살펴보면 경제적 불안정 뿐 아니라 결혼과 자녀, 그리고 가족에 대한 가치관 변화,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자녀교육에 대한 열성과 이로 인한 사교육비에의 과열 투자 등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경제적 지원만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경제적·제도적 지원과 함께 가치관의 변화를 위한 연구와 정책이 뒷받침되는 것이 필요하며(김두섭·차승은·송유진·천희란 외, 2007), 이를 위해 결혼을 앞둔 예비 부모들에게 결혼과 출산, 자녀에 대한 의미와 건강한 부모자녀관계와 가족관계는 어떠한지에 대해 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교육적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저출산 관련 정책은 미래의 우리나라를 이끌고 나아갈 미래의 주인공을 낳고 기르는 일과 관련이 깊기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앞둔 예비 부모들의 결혼과 출산, 자녀, 그리고 가족에 대한 가치관은 어떠한지 알아보고 출산친화적 가치관 형성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한 결혼과 출산, 자녀에 대한 가치관 형성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예비 부모는 결혼과 출산에 대한 욕구가 매우 구체화 되어가는 청년기 대학생으로 정의 하였다. 발달과업과 심리사회적 발달 연구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사실은 청소년기는 정체성을 발견하고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라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예비 부모들은 중·고등학교 시절인 청소년기에 치열한 입시 경쟁으로 인해 정체성을 발견하고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으며 대다수의 예비 부모들은 중·고등학교 시기에 경험되고 완수되어야 할 발달과업 수행과 가치관 형성이 유보된 채 대학에 입학하게 된다(김민정, 2007). 이로 인해 예비 부모 시기는 인간발달에 있어 정체감을 형성하고 친밀감을 구축해 나가는 시기로 청년기에 이르면 무의식적 수준에서 형성되던 자아개념이 의식적 노력으로도 형성되어질 수 있고 아동기까지의 모든 발달과제들이 재통합되어 자신만의 독특한 자아상을 정립하게 된다(허혜경·김혜수, 2002). 따라서 정서적으로 성숙해 있고 현실을 보다 사실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결혼에 대한 욕구도 매우 구체화 되어가는 대학생들에게 결혼과 출산, 자녀, 그리고 가족에 대한 가치관 형성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 출산친화적 가치관 형성 교육에 보다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가까운 미래에 결혼을 하고 자녀를 갖게 될 예비 부모들을 대상으로 출산친화적 가치관 형성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해 봄으로써 결혼관과 자녀관, 가족관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예비 부모들이 결혼과 출산, 자녀, 그리고 가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이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 수립에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연구의 목적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출산친화적 가치관 형성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은 어떠한가?

- 1-1. 출산친화적 가치관 형성 교육 프로그램의 목적 및 목표는 어떠한가?
- 1-2. 출산친화적 가치관 형성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은 어떠한가?
- 1-3. 출산친화적 가치관 형성 교육 프로그램의 교수학습방법은 어떠한가?
- 1-4. 출산친화적 가치관 형성 교육 프로그램의 평가는 어떠한가?
- 1-5. 출산친화적 가치관 형성 교육 프로그램의 모형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출산친화적 가치관 형성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는 어떠한가?

- 2-1. 출산친화적 가치관 형성 교육 프로그램이 결혼관에 미치는 효과는 어떠한가?
- 2-2. 출산친화적 가치관 형성 교육 프로그램이 자녀관에 미치는 효과는 어떠한가?
- 2-3. 출산친화적 가치관 형성 교육 프로그램이 가족관에 미치는 효과는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예비 부모의 출산친화적 가치관 형성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저출산과 가치관 관련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관련 연구는 저출산·고령화 사회기본법이 제정되고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저출산·고령화 사회 위원회를 설치한 2005년 이후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문헌고찰을 통한 연구(김수연, 2004; 황혜원, 2004; 김정례, 2005; 백정현, 2005; 김인춘, 2008)가 가장 많이 이루어져 왔다. 김수연(2004)은 미국·스웨덴·일본의 인구

복지정책과 한국의 인구정책을 비교·분석하여 여성의 지위향상과 권익강화가 필수적이며 보육서비스의 확충, 저소득층 지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보장 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밝혔다. 황혜원(2004)은 영국과 프랑스, 일본의 출산 경향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출산 경향에 시사점을 찾고자 문헌연구 하였으며 단기간에 저출산 정책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며 국민들의 실제적 요구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또한 젊은이들의 가치관이 개인주의화되어 결혼과 자녀에 대한 관심이 저하되고 있기 때문에 결혼 가치관, 가족 가치관의 재정립에 대한 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김정례(2005)는 국내외 이론과 정부의 정책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정책의 시사점을 살펴본 결과 저출산 정책으로는 일시적 전시행정이 아닌 중장기적 대책과 실질적 재원 조달방안이 시급함을 강조하였다. 특히 출산장려정책이 출산당사자인 여성과 그들 부부에게 부담으로 작용해서는 안 되며 결혼, 출산, 그리고 자녀양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족 및 사회적 환경 조성(백정현, 2005)과 성평등적 여성정책의 실현(김인춘, 2008)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문헌분석을 통한 선행연구들은 우리나라의 인구정책과 출산정책의 변화를 알아보고 외국의 저출산 관련 정책을 통한 시사점을 통해 저출산 정책의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단순히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의 변화 과정을 알아 보거나 다른 나라의 출산 정책을 통한 시사점을 얻기 위한 문헌연구보다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저출산 관련 정책에 대한 인식은 어떠하며 저출산 극복을 위해 더욱 효과적인 정책과 방향은 무엇인지 제시하여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하는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저출산 관련 연구의 주제는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저출산에 대한 대응 및 방향과 관련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강혜진(2009)은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 중 어떠한 요인이 다자녀 가정 출산에 결정적으로 작용했는지를 분석하고 그 배경과 실질적 어려움은 무엇인지 살펴 보다 많은 여성들이 출산을 하기 위해서는 자녀출산을 지원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건전한 가치관 성립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뒷받침 하는 현실적 혜택과 남성의 가사와 양육의 도움이 뒤따라야 함을 제시하였다.

이에 문세정(2007)은 저출산에 미치는 심리적 요인을, 이미란(2008)은 사회·경제적 요인, 가족가치관, 결혼가치관, 정책지원이 출산행태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문세정(2007)은 저출산은 소득, 심리적 복지감 및 교육환경에 대한 부담감과 관련이 있으며 저출산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남녀평등의식, 교육환경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라고 밝혔으며 이미란(2008)은 가치관 요인이 상대적으로 출산행태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요인임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저출산 문제는 결혼 가치관과 가족 가치관의 변화와 관련하여 살펴볼 필요성을 시사 하였다.

또한 저출산의 문제를 이미 경험한 외국의 사례를 통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선행연구(정윤경, 2007; 조희정, 2007; 김미숙, 2009)를 살펴보면 정윤경(2007)은 저출산을 경험한 프랑스, 스웨덴, 영국, 독일의 저출산 대응정책 및 복지정책을 살펴보고 성(gender)관점에서 정책을 검토하여 여성의 노동 참여를 장려하고 여성과 남성이 일과 가족을 양립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임을 제시하고 있으며 조희정(2007)은 외국의 정책을 통한 시사점으로 육아 비용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조해야 하며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김미숙(2009)은 외국의 여러 사례를 통한 시사점으로 지속가능한 여성 경제활동 보장대책, 경제적 지원책, 출산·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이와 같이 외국의 사례를 통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선행연구는 인구학·경제학 중심의 출산 정책과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저출산의 원인과 극복을 위한 방향성 모색을 위한 선행연구(방문주, 2010; 방영이, 2010)에서 방문주(2010)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가족 친화적 사회문화 조성이 이루어져야 하며 다양한 수당제도의 도입과 보육서비스의 제공, 육아휴직급여의 상향 조정과 같은 정책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으며 방영이(2010)의 연구에서는 개인의 성역할 가치관, 자녀 가치관의 변화는 출산에 대한 개인의 의지에 강력하게 작용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이를 위한 해결책으로는 더 많은 영유아보육시설의 확충, 자녀를 둔 기혼자보다 독신자에게 더 많은 세제 부과, 소득에 관계없는 일괄적 아동수당 지급, 양성평등 정책, 자녀양육에 대한 국가적 책임 부과 등을 제시하였다. 이는 저출산의 원인이 가치관 변화에 있으며 저출산 극복을 위해 가족 친화적 사회문화 조성, 가치관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저출산의 여러 요인들 중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에 대한 연구 중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김태현·김안나·도세록·윤홍식 외, 2006; 이삼식·김안나·도세록·윤홍식 외, 2006; 김두섭·차승은·송유진·천희란 외, 2007; 김혜환, 2008; 홍표자, 2009; 정수웅, 2010)를 살펴보면 김태현·김안나·도세록·윤홍식 외(2006)는 청소년들은 과거에 비해 국가보다 자신과 가족을 우선하고 있으며 결혼의 필요성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도시보다는 농촌 학생이,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결혼의 필요성을 더

많이 인식하고 있었으며 자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삼식·김안나·도세록·윤홍식 외(2006)는 결혼·가족·성평등에 대한 친화적 가치관을 정립하고 미래 세대들에게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가치관 실태를 파악하고 성평등 가족문화·고용문화 조성·성교육·교육내용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김두섭·차승은·송유진·천희란 외(2007)는 결혼과 출산에 대한 변화와 자녀양육 현황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인구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결혼과 출산의 경험이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의미를 지닐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자녀 양육의 책임 역시 남성, 사회가 함께 나누어야 하는 것이 강조되는 가치관 교육과 함께 실질적이고 제도적인 뒷받침도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김혜환(2008)은 중학생과 미혼남녀의 실태조사를 통해 저출산 시대의 가족가치관 경향과 그 차이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중학생과 미혼남녀의 결혼과 자녀관은 여자보다는 남자가 높게 갖고 있었으며 가족의 다양성에 대해서는 여자보다는 남자가 더 보수적 경향을 갖고 있었다. 홍표자(2009)는 청소년의 가치관이 기대자녀수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조사·분석하고자 하였으며 연구결과 가족가치관과 결혼의 필요성, 긍정적 태도, 자녀의 정서적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성평등 가치관이 높을수록 기대자녀수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수웅(2010)은 학교에서의 인구교육이 학생들의 가족관련 가치관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자 하였다. 연구의 대상을 인구교육 시범학교와 비시범학교로 선정하였으며 연구결과 시범학교 학생의 가족관련 가치관에 대한 인식이 보다 긍정적이었고 이는 현실과 관련하여 보다 정확하게 가족관련 가치관을 인식하고 자신의 미래를 직접 설계하는 활동을 통해 가족관련 가치관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 분석결과 결혼과 출산은 사회적 여건의 개선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가치관 변화가 뒷받침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청소년의 사고와 성장발달 단계에 적합한 가치관 형성 프로그램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가 이루어진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대상이 아직 결혼과 출산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지 않은 청소년이며 가치관 형성을 위한 방법이 학교 교육과정 속에서의 인구교육, 교사교육의 실태 파악과 개선방안에 국한되어 있으며 출산친화적 가치관 형성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효과를 제시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제한점이 있다.

미혼 남녀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에 대한 선행 연구(장진경, 2005; 조

윤정, 2006; 장영희·정미라, 2006; 황지영, 2006; 김용미, 2008; 권형례, 2009; 최미정, 2010; 김혜정, 2010)를 살펴보면 장진경(2005)과 조윤정(2006)은 미혼남녀들은 결혼이나 출산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자녀 출산의 장애요인으로서는 자녀 양육비와 교육비와 같은 경제적 부담감을 지적하였다. 저출산 문제와 관련하여 예비 부모의 결혼, 자녀, 기혼여성 취업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고자 한 장영희·정미라(2006)의 연구에서 예비 부모들은 결혼에 대해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제도가 아니라 개인이 선택하는 생활 형태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성별에 따라서는 남학생이 더 결혼의 당위성을 중시하였고, 결혼 적령연령에 대한 구속은 크게 받지 않았다. 자녀 출산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 응답이 80.1%로 자녀를 반드시 낳아야 한다는 인식이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출산시기 결정 요인으로서는 경제적인 안정을 중시 여겼다. 기혼여성의 취업에 대한 태도에서 여성도 결혼 후 취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여부에서는 92.4%가 찬성한다고 응답하여 남녀 모두 결혼 후 여성의 취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하였다.

황지영(2006)은 대학생들의 결혼에 대한 중요성은 기존 세대보다 낮은 것으로 보이며 결혼 적령기는 높아지고, 자녀출산에 대한 중요성이 줄어들고 있으며 결혼 및 자녀출산에 대한 인식은 가족중심적 가치관에서 개인적 가치관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음을 밝혔다. 김용미(2008)는 여자 예비 부모가 배우자를 선택할 때 조건을 중시하는 경향이 높고 남자 예비 부모는 남자 중심의 가부장적인 전통적 결혼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예비 부모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기성 세대가 지원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가치관을 영역별로 세분화하여 좀 더 전문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이 시급함을 제시하였다.

권형례(2009)는 남성이 여성보다, 연령이 높을수록, 전문직일수록 결혼관과 자녀 계획에 있어 긍정적이었으며 현행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요구도는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밝히면서 이와 같은 요구도 조사의 결과에 따라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와 보육 서비스에 대한 공적 책임이 확립되는 보육 정책의 변화가 필요함을 제기하였다.

최미정(2010)은 예비 부모들의 결혼관과 자녀관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혼관과 자녀관에 따라 출산정책은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었기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앞둔 젊은 세대들이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의지를 결정하는데 있어 이들의 결혼관 및 자녀관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출산정책을 분석하여 긍정적인 방향으로 결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적극적 논의와 실질적 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김혜정(2010)은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보다 남성이 결혼에 대한 인식이

높았으며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 실제 희망하는 자녀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청년층의 취업기회의 증대를 통하여 출산 가능한 여건 조성과 여성들의 결혼의사를 향상 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함을 밝혔다.

선행연구 분석 결과 저출산 극복을 위해 결혼과 출산 인식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 것에서는 의의를 찾을 수 있으나, 결혼과 자녀에 대한 가치관 분석이 아닌 단순히 결혼과 출산에 대한 필요성과 인식을 파악하는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가치관 형성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를 제시하거나 이를 통해 실제적으로 가치관 변화를 탐색한 연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결혼과 출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부담감을 가지고 있으므로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가치관 프로그램에 포함시켜 결혼과 출산, 가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남학생들이 결혼과 출산의 책임과 부담을 여성에게만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역할을 분담할 수 있도록 결혼과 출산, 가족의 중요성과 역할에 대해 토론하고 고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연구들을 요약하면 저출산 관련 연구에서 가장 많이 다루어지고 있는 주제는 출산에 대한 대응 및 방향,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관련된 연구였으며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 관련 연구는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이나 예비 부모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의 경우 저출산 극복을 위한 가치관 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효과를 살펴본 연구는 전혀 없다. 따라서 예비 부모들이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의미와 건강한 부모자녀관계와 가족관계는 어떠한지에 대해 바르게 인식하고 결혼과 자녀, 가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출산친화적 가치관 형성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 검증이 이루어져 저출산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지역에 소재한 C대학교에 재학 중인 예비 부모 57명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으며 실험집단 19명(남 10명($M=24.4$ 세, $SD=50.43$), 여 9명($M=21.4$ 세, $SD=14.72$)), 비교집단 19명(남 10명($M=23.7$ 세, $SD=28.85$), 여 9명($M=22.8$ 세, $SD=21.84$)), 통제집

단 19명(남 10명($M=22.8$ 세, $SD=34.25$), 여 9명($M=21.45$ 세, $SD=11.04$))으로 구성되었다. 실험집단에는 출산친화적 가치관 프로그램을, 비교집단에는 결혼준비, 부부갈등, 가족관계를 다룬 가정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으며 통제집단에는 아무런 프로그램도 실시하지 않았다.

2. 연구도구

가. 결혼관 척도

정윤경(1997)이 개발하고 김예리(2009)가 수정한 결혼관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17개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결혼관의 하위요인은 ‘결혼은 사랑의 완성이다’와 같은 제도 및 정서적 안정 13문항, ‘연애와 결혼은 일치해야 한다’와 같은 결혼조건 4문항이었다. 각 항목에서 ‘매우 그렇다(5점)’, ‘대체로 그렇다(4점)’, ‘보통이다(3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2점)’, ‘매우 그렇지 않다(1점)’의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신뢰도는 Cronbach's α .88로 높게 나타났다. 부정문항은 역채점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에 대해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결혼관 척도 하위요인 및 신뢰도는 <표 1>과 같다.

<표 1> 결혼관 척도 하위요인 및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 수	문항번호	Cronbach's α
제도 및 정서적 안정	13	1, 2, 3, 4, 5, 6, 7, 8, 9, 14, 15, 16*, 17*	.88
결혼조건	4	10*, 11*, 12, 13*	
전체		17	

주: *는 역채점 문항

나. 자녀관 척도

김의철·박영신·권용은(2005)이 제작하고, 김미숙(2010)이 사용한 자녀관 척도를 연구자가 본 연구의 대상과 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예비 부모들을 대상으로 예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척도가 너무 많고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긍정적인 측면 20문항, 부정적인 측면 20문항으로 축소하여 구성하였으며 구성된 설문문의 내용은 전문가 집단과 예비 부모들을 대상으로 다시 내용타당도 검증을 받은 후 사용하였다. 또한 신뢰도 계수 측정 결과, 부정적 자녀관의 관계적 측면에서 자녀와 갈등의 항목은 신뢰도 계수가 .49, 사회적 측면에서 사회활동 제약의 항목

은 .36으로 낮게 나타나 하위 변인의 항목에서 제외시켜 긍정적 측면 20문항, 부정적인 측면 16문항으로 확정하였다.

자녀관 척도는 ‘자녀가 있으면 삶에 활기가 있다’와 같은 긍정적인 측면과 ‘자녀가 있으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와 같은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것이며 하위 변인은 개인적 측면, 관계적 측면, 사회적 측면으로 구성되었으며 긍정적 자녀관에서 개인적 측면의 하위 변인은 심리적 즐거움, 가정의 행복, 대리적 성취, 개인 발전이며 관계적 측면의 하위 변인은 가족공동체의 형성, 가족 결속력의 증진, 의지 대상이다. 사회적 측면의 하위 변인으로는 가문을 이음, 노후 대책, 사회 공헌을 포함시켜 구성하였다. 부정적 자녀관에서 개인적 측면의 하위 변인은 부모역할 부담, 경제적 부담이며 관계적 측면의 하위 변인으로는 가정불화, 가족관계 악화, 대인관계 제약으로, 사회적 측면의 하위 변인으로는 직장생활의 제약, 개인성취 제약, 여가생활 제약으로 구성되었다. 각 항목에서 ‘매우 그렇다(5점)’, ‘대체로 그렇다(4점)’, ‘보통이다(3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2점)’, ‘매우 그렇지 않다(1점)’의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신뢰도는 Cronbach’s α .73-.88로 높게 나타났다. 자녀관 척도 및 하위요인은 표 2와 같다.

〈표 2〉 자녀관 척도 하위요인 및 신뢰도

변인	하위변인	문항 수	문항번호	Cronbach's α	
긍정적 자녀관	개인적 측면	심리적 즐거움	2	1, 2	.87
		개인 발전	2	5, 6	.86
		대리적 성취	2	11, 12	.74
		가정의 행복	2	13, 14	.78
	관계적 측면	가족공동체의 형성	2	3, 4	.84
		의지 대상	2	9, 10	.86
		가족결속력의 증진	2	17, 18	.74
	사회적 측면	가문을 이음	2	7, 8	.84
		노후 대책	2	15, 16	.86
		사회 공헌	2	19, 20	.78
부정적 자녀관	개인적 측면	부모역할 부담	2	9, 10	.74
		경제적 부담	2	13, 14	.82
	관계적 측면	가족관계 악화	2	3, 4	.68
		가정불화	2	17, 18	.83
		대인관계 제약	2	19, 20	.74
	사회적 측면	여가생활 제약	2	5, 6	.88
		개인 성취 제약	2	7, 8	.73
		직장생활의 제약	2	11, 12	.88

다. 가족관 척도

이삼식·김안나·도세록·윤홍식 외(2006)의 가족관 척도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가족관은 결혼에 대한 견해와 자녀에 대한 견해를 제외하고 남녀가 결혼할 생각이 있어도 먼저 함께 살아보는 것도 괜찮다와 같은 가족에 관한 견해 6문항, 가정의 중요한 일은 남편이 결정해야 한다와 같은 부부역할태도 4문항의 총 10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전문가 집단과 예비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예비 조사에서 내용타당도 검증을 실시한 후 사용하였다. 신뢰도는 Cronbach's $\alpha=.77$ 로 나타났다. 가족관 척도 하위요인은 <표 3>과 같다.

<표 3> 가족관 척도 하위요인 및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 수	문항번호	Cronbach's α
가족에 관한 견해	6	5, 6, 7, 8, 9, 10	.77
부부역할태도	4	1, 2, 3, 4	

3. 연구설계 및 절차

가. 연구설계

본 연구는 예비 부모의 출산친화적 가치관 형성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실험, 비교, 통제집단의 설계를 기초로 하였다. 본 연구의 실험설계는 <표 4>와 같다.

<표 4> 연구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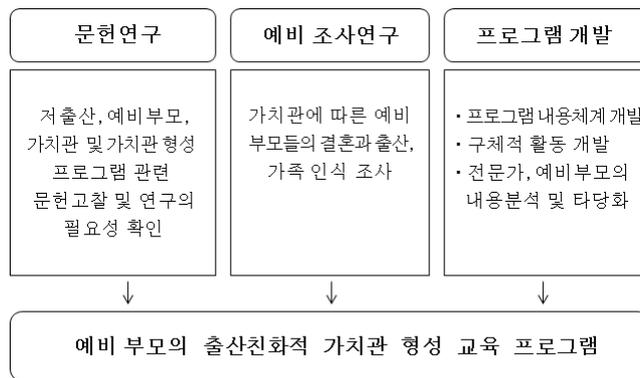
집단구분	사전	처치	사후
실험	O ₁ , O ₂ , O ₃	X ₁	O ₁ , O ₂ , O ₃
비교	O ₁ , O ₂ , O ₃	X ₂	O ₁ , O ₂ , O ₃
통제	O ₁ , O ₂ , O ₃		O ₁ , O ₂ , O ₃

주: X₁ - 출산친화적 가치관 형성 교육 프로그램, X₂ - 가정교육 프로그램, O₁ - 결혼관, O₂ - 자녀관, O₃ - 가족관

나. 연구절차

1) 프로그램 개발

본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과정을 살펴보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예비 부모의 출산친화적 가치관 형성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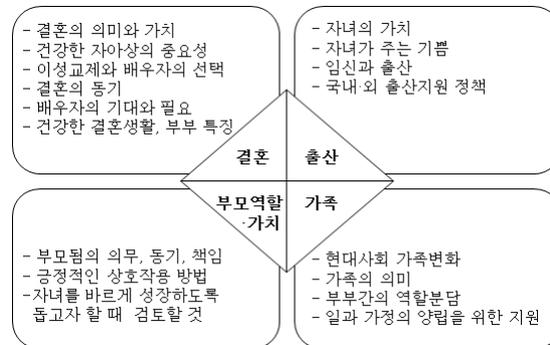
가) 목적 및 목표

예비 부모의 출산친화적 가치관 형성 교육 프로그램의 목적은 예비 부모들이 결혼과 출산, 자녀, 가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 수립과 연구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출산친화적 가치관 형성 교육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목표는 결혼과 자녀, 출산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부모와 가족의 가치와 역할을 인식하는 것이다.

나) 교육내용 선정 및 조직

예비 부모의 출산친화적 가치관 형성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은 선행연구와 기초연구를 참고하여 구성하였다.

선행연구와 기초연구 검토에 따라 출산친화적 가치관 형성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 요소는 결혼, 출산, 부모역할과 가치, 가족의 4가지로 선정하였다. 예비 부모의 출산친화적 가치관 형성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체계를 정리하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예비 부모의 출산친화적 가치관 형성 교육 프로그램 내용 체계

다) 교수학습 방법

Knowles(1977)의 안드라고지 접근에 따라 예비 부모의 출산친화적 가치관 형성 교육 프로그램은 예비 부모들의 흥미와 관심에 따라 교육목표와 내용을 조직하였으며 연구자가 준비한 강의를 단순히 전달하는 형식이 아닌, 연구자와 예비 부모들이 함께 구성하고 자유롭게 토론하며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나누면서 새로운 가치관이 구성되어 가도록 하였다.

교수학습 활동의 과정은 출산친화적 가치관 형성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예비 부모들이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위밍업, 강의, 활동, 마무리의 단계로 진행하였으며 강의 주제에 따라 활동을 다양하게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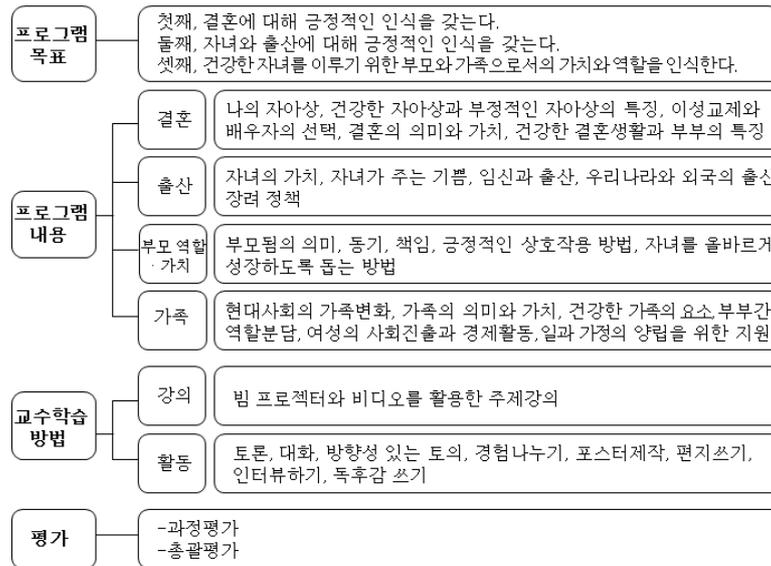
라) 평가

성인교육에 있어서의 평가는 성인학습자들이 스스로 평가를 내릴 수 있으므로 학습자들이 참여해야 한다는 Knowles(1977)의 주장에 따라 프로그램 참여자인 예비 부모들이 프로그램의 목적, 방법, 기술, 내용, 자료의 개선에 대해 1차 협의를 하였으며 개선안을 전문가 3인의 협의를 통해 평가하였다. 또한 프로그램 진행 도중에 개선을 위한 비공식적 형성평가 역시 같은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다. 예비 부모들의 출산친화적 가치관 형성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결혼관, 자녀관, 가족관 척도를 사용하였다.

마) 프로그램 모형

본 연구는 결혼예비교육과 예비 부모교육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과 저출산 연구동향

분석, 예비 부모들의 가치관에 따른 결혼 및 출산인식에 대한 예비 조사를 토대로 예비 부모의 출산친화적 가치관 형성 교육 프로그램 모형을 개발하였다. 이를 그림으로 제시하면 [그림 3]과 같다.



[그림 3] 예비 부모의 출산친화적 가치관 형성 교육 프로그램 모형

2) 예비 검사

출산친화적 가치관 형성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을 위해 사용된 도구의 적절성을 알아보고자 예비 검사를 실시하였다. 결혼관 척도와 자녀관 척도, 그리고 가족관 척도의 각 하위 문항을 구성하여 전문가 3인에게 내용 타당도를 검토 받은 후, 연구 참여자들이 문항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예비 부모 10명(남학생 5명, 여학생 5명)에게 예비 검사를 실시하였다. 예비 검사 결과 불확실한 문항을 검토하고 수정·보완하여 본 연구에 사용될 척도를 확정하였다. 자녀관 관련 도구는 긍정적 자녀관 50문항, 부정적 자녀관 5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중복되는 문항과 문항 수가 너무 많다는 의견을 수렴하여 긍정적 자녀관 20문항, 부정적 자녀관 20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예비 부모들과 전문가 집단에게 이에 대한 내용 타당도 검증을 실시한 후 긍정적 자녀관 20문항, 부정적 자녀관 16문항을 사용하였다.

3) 사전 검사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 실험집단, 비교집단, 통제집단을 대상으로 결혼관, 자녀관, 가족관 척도를 사용하여 사전 검사를 실시하였다.

4) 프로그램 실시

실험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출산친화적 가치관 형성 교육 프로그램은 실험집단에 한하여 주 1회 1시간 30분씩 총 10회를 실시하였다. 교육 장소는 C대학교 강의실을 사용하였다. 출산친화적 가치관 형성 교육 프로그램은 결혼과 자녀,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을 갖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부모로서의 역할과 가족의 가치를 인식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프로그램의 하위영역은 결혼, 출산, 부모역할 및 가치, 가족의 4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사후검사는 10회기를 마친 후 실험집단, 비교집단, 통제집단을 대상으로 결혼관, 자녀관, 가족관 척도를 사용하여 실시하였다. 실험집단의 출산친화적 가치관 형성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은 <표 5>와 같다.

<표 5> 실험집단의 출산친화적 가치관 형성 교육 프로그램 내용

회기	영역	주제	목적	내용
1	도입	서로를 소개해요	연구자와 참여자, 참여자들 간 친밀함과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함께 내용과 방법을 구성한다.	- 친밀함과 신뢰관계 형성 - 프로그램의 과정과 목표 인식 및 의견 반영
2	결혼	건강한 자아상과 행복한 결혼	나의 자아상을 파악하고 건강한 자아상이 행복한 결혼과 가정 형성에 중요함을 인식할 수 있다.	-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나의 자아상 파악하기 - 건강한 자아상과 부정적 자아상의 특징
3		결혼이란 ..	이성교제와 배우자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결혼의 의미와 가치를 알 수 있다.	- 이성교제와 배우자 선택 - 결혼의 의미와 가치 - 건강한 결혼생활과 건강한 부부의 특징
4	출산	소중한 우리 자녀	자녀의 가치와 자녀가 주는 기쁨을 알 수 있다.	- 자녀의 가치 - 자녀가 주는 기쁨
5		자녀를 위한 준비	자녀를 임신하고 출산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여러 나라의 출산장려정책을 알아보고 미래의 태어날 자녀를 위해 필요한 정책에 대해 생각한다.	- 임신과 출산 - 우리나라와 외국의 출산장려정책

(표 5 계속)

회기	영역	주제	목적	내용
6	부모 가치 및 역할	부모됨의 의미와 가치	부모 됨의 의미와 동기, 책임을 알 수 있다.	- 부모됨의 의미 - 부모됨의 동기 - 부모됨의 책임
7		따뜻하고 좋은 엄마아빠 가 되고 싶어요	자녀에게 따뜻하고 좋은 부모의 모습은 어떠한지 생각해 볼 수 있다.	- 긍정적인 상호작용 방법 - 자녀를 바르게 성장하 도록 돕고자 할 때 검 토해 보아야 할 것
8	가족	나에게 가족은	현대 사회의 가족 변화를 알아보고 가족 의 의미와 가치를 느낄 수 있다.	- 현대사회의 가족변화 - 가족의 의미와 가치 - 건강한 가족의 요소
9		우리 가족의 계획표	양성평등적 사고를 가지고 가족 내 생활 설계를 할 수 있다.	- 부부간 역할 분담 - 여성의 사회진출과 경제활동 -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
10	종료	예비 부부, 부모를 위한 축제	아름다운 가정의 멋진 부부, 부모가 될 예비 부모들을 축하한다.	- 내가 꿈꾸는 우리 가족의 모습 -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쓴 편지 낭독 - 남편·아내, 부모 자격증 수여

4. 분석방법

출산친화적 가치관 형성 교육 프로그램이 결혼관, 자녀관, 그리고 가족관에 미치는 효과는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해 사전검사를 실시하였으나 결혼관, 자녀관의 경우 사전 검사에서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일원변량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가족관의 경우 사전 검사에서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사전검사와 사후검사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사전 검사를 공변인으로 처리한 후에 사후검사값을 조정하여 공변량분석(ANCOVA)을 실시하였다.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그리고 통제집단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Tukey사후 검증으로 처리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분석

1. 출산친화적 가치관 형성 교육 프로그램이 결혼관에 미치는 효과

출산친화적 가치관 형성 교육 프로그램이 결혼관에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결혼관에 대해 실험집단, 비교집단, 통제집단에 사전, 사후 검사를 실시하여 차이가 유의미한지 검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결혼관의 집단 간 사전사후 검사 비교

변인	집단		<i>N</i>	<i>M</i>	<i>SD</i>	<i>F</i>	
결혼관 전체	사전	실험	19	3.65	.32	.80	
		비교	19	3.77	.28		
		통제	19	3.72	.31		
	사후	실험	19	3.86	.28		
		비교	19	3.76	.23		1.13
		통제	19	3.72	.32		
결혼제도 및 정서적 안정	사전	실험	19	4.05	.42	.86	
		비교	19	4.21	.34		
		통제	19	4.17	.41		
	사후	실험	19	4.34	.34		
		비교	19	4.21	.33		.34
		통제	19	4.17	.42		
결혼 조건	사전	실험	19	2.34	.35	1.17	
		비교	19	2.35	.41		
		통제	19	2.32	.36		
	사후	실험	19	2.27	.32		
		비교	19	2.27	.26		.01
		통제	19	2.28	.29		

$p > .05$

<표 6>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결혼관 전체에서 세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F=.113, p>.05$). 결혼관의 구성요소인 결혼제도 및 정서적 안정에서도 세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F=.34, p>.05$). 결혼관의 구성요소인 결혼 조건에서도 세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F=.01, p>.05$). 따라서 출산친화적 가치관 형성 교육 프로그램은 예비 부모의 결혼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2. 출산친화적 가치관 형성 교육 프로그램이 자녀관에 미치는 효과

출산친화적 가치관 형성 교육 프로그램이 자녀관에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자녀관에 대해 실험집단, 비교집단, 통제집단에 사전, 사후 검사를 실시하여 차이가 유의미한지 검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자녀관의 집단 간 사전사후 검사 비교

변인	집단		N	M	SD	F	Tukey
긍정적 자녀관 전체	사전	실험	19	4.13	.51	.24	b<c<a
		비교	19	4.06	.47		
		통제	19	4.17	.49		
	사후	실험	19	4.43	.37	.38*	
		비교	19	4.03	.47		
		통제	19	4.17	.49		
긍정적 자녀관 -개인적 측면	사전	실험	19	4.25	.54	.40	b<c<a
		비교	19	4.15	.51		
		통제	19	4.29	.40		
	사후	실험	19	4.56	.34	4.97*	
		비교	19	4.13	.49		
		통제	19	4.29	.40		
긍정적 자녀관 -관계적 측면	사전	실험	19	4.23	.58	.39	-
		비교	19	4.28	.56		
		통제	19	4.39	.54		
	사후	실험	19	4.52	.47	2.04	
		비교	19	4.19	.51		
		통제	19	4.39	.54		
긍정적 자녀관 -사회적 측면	사전	실험	19	3.87	.64	.23	-
		비교	19	3.73	.50		
		통제	19	3.80	.70		
	사후	실험	19	4.17	.54	2.74	
		비교	19	3.75	.54		
		통제	19	3.80	.70		
부정적 자녀관 전체	사전	실험	19	3.12	.59	1.70	-
		비교	19	3.01	.54		
		통제	19	2.81	.44		
	사후	실험	19	2.76	.60	1.34	
		비교	19	3.02	.52		
		통제	19	2.81	.43		

(표 7 계속)

변인	집단	N	M	SD	F	Tukey	
부정적 자녀관 -개인적 측면	사전	실험	19	3.36	.66	.33	-
		비교	19	3.34	.57		
		통제	19	3.21	.67		
	사후	실험	19	3.19	.63	.79	
		비교	19	3.42	.56		
		통제	19	3.22	.66		
부정적 자녀관 -관계적 측면	사전	실험	19	2.83	.73	1.26	-
		비교	19	2.56	.66		
		통제	19	2.52	.54		
	사후	실험	19	2.38	.65	.31	
		비교	19	2.50	.57		
		통제	19	2.52	.54		
부정적 자녀관 -사회적 측면	사전	실험	19	2.42	.59	2.68	c<a<b
		비교	19	2.53	.70		
		통제	19	2.08	.55		
	사후	실험	19	2.09	.64	3.94*	
		비교	19	2.56	.58		
		통제	19	2.08	.55		

주: a=실험집단, b=비교집단, c=통제집단

* $p < .05$

표 7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긍정적 자녀관 전체의 사전 검사에서는 실험집단($M=4.13$, $SD=.51$)과 비교집단($M=4.06$, $SD=.47$), 통제집단($M=4.17$, $SD=.49$)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F=.24$, $p>.05$). 그러나 사후 검사에서는 실험집단($M=4.43$, $SD=.37$)과 비교집단($M=4.03$, $SD=.47$), 통제집단($M=4.17$, $SD=.49$)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38$, $p<.05$).

긍정적 자녀관 중 개인적 측면의 사전 검사에서는 실험집단($M=4.25$, $SD=.54$)과 비교집단($M=4.15$, $SD=.51$), 통제집단($M=4.29$, $SD=.40$)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F=.40$, $p>.05$). 그러나 사후 검사에서는 실험집단($M=4.56$, $SD=.34$)과 비교집단($M=4.13$, $SD=.49$), 통제집단($M=4.29$, $SD=.40$)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4.97$, $p<.05$).

긍정적 자녀관 중 관계적 측면($F=2.04$, $p>.05$, 사회적 측면($F=2.74$, $p>.05$, 부정적 자녀관 전체($F=1.34$, $p>.05$, 부정적 자녀관 중 개인적 측면($F=.79$, $p>.05$, 관계적 측면($F=.31$, $p>.05$ 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 자녀관 중 사회적 측면의 사전 검사에서는 실험집단($M=2.42$, $SD=.59$)과 비

교집단($M=2.53$, $SD=.70$), 통제집단($M=2.08$, $SD=.55$)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F=2.68$, $p>.05$). 그러나 사후 검사에서는 실험집단($M=2.09$, $SD=.64$)과 비교집단($M=2.56$, $SD=.58$), 통제집단($M=2.08$, $SD=.55$)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3.94$, $p<.05$). 따라서 출산친화적 가치관 형성 교육 프로그램은 긍정적 자녀관 전체와 개인적 측면, 부정적 자녀관의 사회적 측면에 영향을 미친 것을 알 수 있다.

3. 출산친화적 가치관 형성 교육 프로그램이 가족관에 미치는 효과

출산친화적 가치관 형성 교육 프로그램이 가족관에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가족관에 대한 실험집단, 비교집단, 통제집단의 사전, 사후 검사의 평균 및 표준편차, 그리고 조정된 사후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조정된 사후점수 향상의 차이가 유의미한지 알아보기 위해 사전검사를 공변인으로 한 공변량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 가족관의 집단 간 사전사후 점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

항목	구분	사전		사후	조정된 사후
		$M(SD)$	F	$M(SD)$	$M(SE)$
가족관 전체	실험	2.80(.42)	3.6*	2.74(.42)	2.63(.06)
	비교	2.80(.44)		2.88(.50)	2.79(.06)
	통제	2.45(.48)		2.45(.48)	2.66(.06)
가족에 관한 견해	실험	2.80(.46)	3.4*	2.78(.52)	2.63(.07)
	비교	2.68(.41)		2.75(.52)	2.71(.07)
	통제	2.42(.46)		2.42(.46)	2.62(.07)
부부역할태도	실험	3.17(.68)	1.59*	3.31(.73)	3.35(.10)
	비교	3.02(.93)		2.90(.89)	3.08(.10)
	통제	3.50(.87)		3.50(.87)	3.28(.11)

<표 8>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출산 친화적가치관 형성 프로그램을 경험한 실험집단의 가족관 전체는 사전점수($M=2.80$, $SD=.42$)에 비해 사후점수($M=2.74$, $SD=.42$)가 낮게 나타났으며 비교집단은 사전점수($M=2.80$, $SD=.44$)에 비해 사후점수($M=2.88$, $SD=.50$)는 높아졌고 통제집단은 사전점수와 사후점수($M=2.45$, $SD=.48$)가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된 사후점수 평균의 경우에는 비교집단($M=2.79$, $SE=.06$)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통제집단($M=2.66$, $SE=.06$), 실험집단($M=2.63$, $SE=.06$)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관의 구성요소인 가족에 관한 견해에서는 실험집단이 사전점수($M=2.80, SD=.46$)에 비해 사후점수($M=2.78, SD=.52$)가 낮게 나타났으며 비교집단은 사전점수($M=2.68, SD=.41$)에 비해 사후점수($M=2.75, SD=.52$)가 높게 나타났다. 통제집단은 사전점수와 사후점수($M=2.42, SD=.46$)가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된 사후점수 평균의 경우에는 비교집단($M=2.71, SE=.07$)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실험집단($M=2.63, SE=.07$), 통제집단($M=2.62, SE=.07$)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관의 구성요소인 부부역할태도에 있어서는 실험집단이 사전점수($M=3.17, SD=.68$)에 비해 사후점수($M=3.31, SD=.73$)가 높게 나타났으며 비교집단은 사전점수($M=3.02, SD=.93$)에 비해 사후점수($M=2.90, SD=.89$)가 낮게 나타났다. 통제집단은 사전점수와 사후점수($M=3.50, SD=.87$)가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된 사후점수 평균의 경우에는 실험집단($M=3.35, SE=.10$)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통제집단($M=3.28, SE=.11$), 비교집단($M=3.08, SE=.10$) 순으로 나타났다.

〈표 9〉 수정된 사후가족관 점수에 대한 공변량분석 결과

변인	변량원	SS	df	MS	F
가족관 전체	수정모형	9.84	5	1.98	24.02
	집단간	.26	2	.13	1.64
	오차	4.17	51	.08	
	전체	14.01	56		
가족에 관한 견해	수정모형	10.39	5	2.07	21.59
	집단간	.08	2	.04	.43
	오차	4.90	51	.09	
	전체	15.30	56		
부부역할태도	수정모형	30.33	5	6.06	28.35
	집단간	.74	2	.37	1.74
	오차	10.91	51	.21	
	전체	41.24	56		

주: a= 실험집단, b= 비교집단, c= 통제집단

$p > .05$

〈표 9〉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가족관 전체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F=1.64, p>.05$). 또한 가족관의 구성요소인 가족에 관한 견해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F=.43, p>.05$). 가족관의 구성요소인 부부역할 태도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F=1.74, p > .05$). 즉, 출산친화적 가치관 형성 교육 프로그램은 예비 부모들의 가족관, 가족에 관한 견해, 부부역할 태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가까운 미래에 결혼을 하고 자녀를 갖게 될 예비 부모들을 대상으로 출산친화적 가치관 형성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해 봄으로써 결혼관과 자녀관, 가족관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출산친화적 가치관 형성 교육 프로그램이 결혼관, 자녀관, 그리고 가족관에 미친 효과를 살펴보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출산친화적 가치관 형성 교육 프로그램 개발 절차와 과정에 대해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출산친화적 가치관 형성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절차를 살펴보면 첫 번째 단계로 저출산 관련 연구와 가치관 교육 관련 연구, 그리고 결혼예비학교·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선행 연구를 통해 프로그램의 이론을 확립하였으며 예비 부모의 결혼과 출산, 그리고 가족에 대한 인식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관에 대한 예비 조사연구를 실시하여 프로그램 개발 방향의 기초로 삼았다. 두 번째 단계로 예비 부모의 출산친화적 가치관 형성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방향을 확정하고 이를 토대로 프로그램의 목적 및 목표, 주제 및 내용 구성, 교수학습 방법, 그리고 평가의 기본 구조를 중심으로 모형을 개발하였으며 전문가 3인과 함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였다. 세 번째 단계로 예비 부모의 출산친화적 가치관 형성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위한 활동, 일시, 소요시간, 과제, 준비물을 포함한 시안을 개발하였고 네 번째 단계로 예비 부모들을 대상으로 출산친화적 가치관 형성 교육 프로그램을 예비 실시하여 프로그램의 적합성을 검토하였다. 다섯 번째 단계로 전문가와 예비 부모들의 견해를 토대로 프로그램을 수정·보완하여 예비 부모의 출산친화적 가치관 형성 교육 프로그램을 최종적으로 개발하였다.

선행연구 분석 결과 그동안 이루어진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들(이삼식·김안나·도세록·윤희식 외 2006; 김혜환, 2008; 홍표자, 2009; 정수웅, 2010)의 대상이 아직 결혼과 출산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지 않은 청소년이며 가치관 형성을 위한 방법이 학교 교육과정 속에서의 인구교육, 교사 교육의 실태 파악과 개선방안에 국한되어 있고 결혼과 출산, 가족에 대한 가치관 형성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효과를 살펴본 연구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예비 부모를 대상으로 한 출산친화적 가치관 형성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효과를 알아본 본 연구는 매우 의미 있다 하겠다.

둘째, 출산친화적 가치관 형성 교육 프로그램이 결혼관에 미친 효과를 살펴보면, 출산친화적 가치관 형성 교육 프로그램은 결혼관에서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게 나타난 연구 결과(조윤정, 2006; 황지영, 2006; 나유미·김미경, 2012)들과는 상반된 결과이나 결혼을 의무나 숙명이 아닌 선택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연구결과(장영희·정미라, 2006; 이삼식·최효진·오영희·서문희 외, 2009)들과는 유사한 결과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결혼을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보는 인식과 인생에 있어 한 번은 경험해야 할 절차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결혼에 대해 어떠한 가치를 두고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결혼의 시기와 관련이 있으며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사람일수록 결혼에 대해 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며(Lesthaeghe & Surkin, 1988), 결혼이 중요하지 않다는 태도를 가진 경우 결혼이 늦어지는 요인으로 작용한다(Teachman, Polonko & Leigh, 1987). 결혼이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는 인식은 가족의 형성 및 유지를 어렵게 함으로서 앞으로 현재의 낮은 출산수준을 유지하는 것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예비 부모들의 결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나 부담감을 경감시키고 건강한 부부관계의 모델링을 제시하여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출산친화적 가치관 형성 교육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셋째, 출산친화적 가치관 형성 교육 프로그램이 자녀관에 미친 효과를 살펴보면, 출산친화적 가치관 형성 교육 프로그램은 예비 부모들의 긍정적 자녀관, 긍정적 자녀관 중 개인적 측면, 부정적 자녀관 중 사회적 측면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적 자녀관 중 개인적 측면은 자녀로 인한 심리적 즐거움과 가정의 행복을 포함하며 출산친화적 가치관 형성 교육 프로그램이 예비 부모들의 긍정적 자녀관 중 개인적 측면에서 효과가 있었다는 것은 자녀로 인한 심리적 즐거움과 가정의 행복을 긍정적으로 인식하였음을 의미한다. 자녀 출산의 이유를 이와 같은 개인적 측면 때문으로 밝힌 연구(오정숙·박영신·김의철, 2007; 문순덕, 2007; 김미숙, 2010)에서와 같이 자녀 출산에 있어 개인적 측면은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출산친화적 가치관 형성 교육 프로그램이 개인적 측면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긍정적 자녀관 중 관계적 측면은 가족공동체의 형성, 가족 결속력의 증진을 포함하며 출산친화적 가치관 형성 교육 프로그램이 예비 부모들의 관계적 측면에서 효과가 없었다는 것은 자녀로 인한 가족공동체의 형성과 가족 결속력의 증진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였음을 의미한다. 과거에 가족 중심적이고 가족주의에 기반한 관계 지향적 문화를 이루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가족의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고 가족 공동체를 형성하는 자녀의 출산을 중시하였으나(김미숙, 2010) 현대에 들어와서는 이러한 인식이 약화되고 자녀를 돌보거나 키우는 것 보다는 개인주의적 사고가 만연하고 있으

므로 이들을 위한 출산친화적 가치관 교육프로그램 개발 시 관계적 측면을 더욱 강조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긍정적 자녀관 중 사회적 측면은 자녀가 가문을 잇고 노후의 대책이 되며 사회에 공헌하는 것을 포함하며 출산친화적 가치관 형성 교육 프로그램이 예비 부모들의 사회적 측면에서 효과가 없었다는 것은 예비 부모들이 자녀가 가계 계승을 하고 노후에 경제적·심리적 도움을 주는 존재임을 인식하지 못하였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자녀의 정서적 가치는 점차 강조되고 있는 반면, 도구적 또는 수단적 가치가 점차 약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이삼식·김안나·도세록·윤홍식 외, 2006; 나유미·김미경, 2012). 따라서 자녀에 대한 사회적 측면에서의 긍정적 인식이 강화될 수 있는 출산친화적 가치관 형성 교육 프로그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예비 부모들의 부정적 자녀관 중 개인적 측면은 경제적 부담, 부모역할 부담을 포함하며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많은 연구(조윤정, 2006; 황지영, 2006; 권형례, 2009; 신호영, 2009; 나유미·김미경, 2012)에서는 자녀를 낳지 않기를 원하는 이유를 경제적인 부담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전통사회보다 자녀의 경제적 가치는 줄어든 반면 자녀의 출산 비용 뿐 아니라 자녀의 양육비와 교육비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 진다. 또한 예비 부모들은 부모가 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담과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육아 및 자녀 양육에 대한 출산친화적 가치관 형성 교육 프로그램이 시행되어 부모의 부담감을 경감시키고 부모로서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부정적 자녀관 중 관계적 측면은 가족관계 약화, 가정불화, 대인관계의 제약을 포함하며 출산친화적 가치관 형성 교육 프로그램이 예비 부모들의 관계적 측면에서 효과가 없었다는 것은 자녀로 인한 가족관계 약화, 가정불화, 대인관계의 제약에 대한 부정적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였음을 의미한다. 장영희·정미라(2006)의 연구에서 밝힌 바와 같이 현대 사회에는 결혼을 하면 자녀를 출산하는 것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여왔던 경향이 급속도로 약화되고 있는데 이는 부부만의 여가생활이나 쾌락적 가치를 중시하기 때문에 결혼 후 자녀출산에 대해 시기를 미루거나 자녀를 갖지 않으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부정적 자녀관 중 사회적 측면은 자녀 출산으로 인한 여가생활과 직장생활의 제약, 개인 성취의 제약을 포함하며 출산친화적 가치관 형성 교육 프로그램이 예비 부모들의 사회적 측면에서 효과가 있었다는 것은 자녀 출산으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자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졌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결

과는 출산친화적 가치관 형성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자아실현, 가사부담, 그리고 자녀양육으로 인해 결혼이나 출산을 기피하는 예비 부모들의 인식을 변화시켰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가족 내 가사부담과 자녀양육이 여성에게 전담되고 있으며 많은 연구(정연숙, 2006; 이삼식·김안나·도세록·윤홍식 외, 2006; 위점애, 2007; 김미숙, 2010; 이삼식·최효진, 2010)에서는 이를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의 요인으로 보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저출산 고령화 시대 여성인력 활용방안’ 보고서에 의하면 결혼 후 출산과 육아 등으로 직장을 포기하는 여성이 많기 때문에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07년 이후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신문, 2010. 8. 16). 또한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운 것은 자녀양육에 대한 사회 환경의 열악함을 의미하며 이는 취업여성의 경력단절은 물론 결혼 및 출산 포기로까지 이어지게 하는 부정적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이다(이삼식·최효진·오영희·서문희 외, 2009). 따라서 출산 장려 정책이 성공을 거두고 있는 스웨덴과 프랑스에서와 같이 여성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직장생활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직장보육시설의 확충이 이루어져야 하며, 근무시간의 축소와 재택 근무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여성의 일과 가정의 양립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의 형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출산친화적 가치관 형성 교육 프로그램의 시행과 정책의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넷째, 출산친화적 가치관 형성 교육 프로그램이 가족관에 미친 효과를 살펴보면, 출산친화적 가치관 형성 교육 프로그램은 예비 부모들의 가족관, 가족에 관한 견해, 부부역할 태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출산친화적 가치관 형성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관의 구성요소인 부부역할태도에서 사전점수에 비해 사후점수가 높게 나타난 것은 가족 내에서 부부가 서로 함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인식이 생겼기 때문으로 볼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인식의 변화는 여성의 일·가정 양립과 육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 진다.

결론적으로, 출산친화적 가치관 형성 교육 프로그램은 사회적, 경제적 여건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건강한 부모의 가치와 역할을 인식할 수 있도록 영향을 주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결혼과 출산에 대한 부담감을 경감시킬 수 있는 출산친화적 가치관 형성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실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10 회기를 신청자에 한해 실시하였으나 대학 내의 교양과목 필수 개설 등의 보다 효과적

인 방법으로 출산친화적 가치관 형성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출산 친화적 가치관을 정립하기 위한 교육,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홍보를 지원할 체제의 구축을 위해 DVD나 비디오 등의 교육 매체와 인터넷 등의 콘텐츠 개발과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등 교육 전달체제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예비 부모들의 출산 친화적 가치관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살펴 보았는데 이러한 출산 친화적 가치관이 실제 결혼과 출산, 가족 내의 역할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를 종단적으로 살펴보고 그 효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대상을 대학생 예비 부모로 하였으나 미혼 세대 전체로 확장하여 연령별로 결혼과 자녀, 가족에 대해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밝히고 이에 따라 출산친화적 가치관 형성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효과는 어떠한지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가정교육 프로그램을 출산친화적 교육 프로그램과 비교하여 효과를 검증하였으나 이외에 다양한 부모교육 프로그램과 비교하여 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혜진(2009). 저출산 시대 여성의 다자녀 출산 결정에 미치는 요인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형례(2009). 가임 연령 미혼남녀의 출산장려 정책에 관한 연구. 건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두섭·차승은·송유진·천희란 외(2007). 저출산 사회의 결혼·자녀양육과 가족생활연구. 한국 보건사회연구원.
- 김미숙(2009). 정부 출산장려정책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숙(2010). 자녀관과 가족가치에 대한 인식 : 유아 부모와 외할머니 집단을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민정(2007). 대학생의 셀프 리더십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학습자 변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수연(2004). 저출산 시대에 대비한 인구복지정책.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예리(2009). 가족생태이론에 기초한 미혼 남녀의 결혼관과 관련변인 연구.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용미(2008). 대학생의 가치관이 생활양식에 미치는 영향. 한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의철·박영신·권용은(2005). 한국 세대별 어머니 집단의 가족관련 가치의식 비교 자녀 가치와 양육태도 및 부모부양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1(1), 109-142.
- 김인춘(2008). 한국의 저출산 현상과 성평등: 인구정책과 여성정책의 연계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16(1). 312-345.
- 김정례(2005). 우리나라 출산장려 정책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태현·김안나·도세록·윤홍식 외(2006). 초·중등학생의 결혼 및 자녀관관 정립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혜정(2010). 미혼남녀별 결혼 및 자녀출산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일부미혼남녀 대상.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환(2008). 저출산 시대의 가족가치관 경향: 중등학생과 미혼남녀(20-29세) 실태조사 분석.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나유미·김미경(2012). 예비부모세대의 성별과 가치관에 따른 결혼 및 출산에 관한 인식. 유아교육학논집, 16(2), 215-234.
- 남기동(2005). 저출산 원인과 보육 및 육아지원 정책의 방향. 복지행정연구, 21, 315-337.
- 문세정(2007). 저출산과 관련된 심리적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순덕(2007). 대학생과 부모집단의 자녀가치 인식에 대한 토착심리학적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영화(2010).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가족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부산 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방문주(2010). 한국의 저출산 원인과 출산정책의 방향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방영이(2010). 출산장려정책의 방향성에 관한 연구: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백정현(2005). 저출산 사회극복을 위한 복지정책 개선방안. 한국행정사학회, 16, 81-108.

- 신효영(2009).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가치관과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사회적인식. 한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정숙·박영신·김의철(2007). 고등학생과 부모 집단의 자녀관 인식에 대한 토착심리학적 연구. 청소년학연구, 14(2), 327-353.
- 위점애(2007). 우리나라 저출산 요인 분석 및 출산장려정책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숙·정석진·박진아·신의진(2009). 저출산에 대한 여대생의 인식 및 심리적 이해.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4(1), 93-108.
- 이문옥(2006). 저출산을 대비한 출산장려정책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미란(2008). 출산행태의 영향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서울거주 여성의 인식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삼식(2005). 저출산 원인 및 종합대책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삼식·김안나·도세록·윤홍식 외(2006). 미래세대의 결혼·출산친화적 가치관 정립을 위한 종합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삼식·최효진·오영희·서문희 외(2009). 2009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장영희·정미라(2006). 결혼, 자녀, 여성취업에 대한 예비부모세대의 태도분석. 육아지원연구, 1(2), 133-154.
- 장진경(2005). 미혼남녀의 결혼관과 출산 및 자녀관에 따른 출산정책 선호도 분석. 대한가정학회, 43(11), 165-183.
- 정수웅(2010). 학교인구교육이 학생들의 가족관련 가치관 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윤경(1997). 우리나라 성인의 결혼관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연구 논문집, 32.
- 정윤경(2007). 저출산 문제점과 정책 실효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윤정(2006). 여대생의 결혼과 출산의식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희정(2007). 외국정책을 통한 한국의 저출산 대응정책에 관한 기초연구: 스웨덴, 프랑스, 일본을 중심으로. 강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미정(2010). 대학생들의 결혼관, 자녀관에 따른 출산장려정책에 관한 연구. 울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통계청(2012). 2011년 출생통계 잠정결과.

- 허혜경·김혜수(2002). 청년발달심리학. 서울: 학지사.
- 홍표자(2009). 청소년 가치관이 기대자녀수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지영(2006). 대학생들의 결혼 및 출산인식에 대한 연구. 서울기독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혜원(2004). 영국·프랑스·일본의 출산 경향 분석. 사회과학논총, 26(2), 143-157.
- 서울신문 2010. 8. 16. '女 경제참여율 49.2% 육아부담 등에 10년 전 회귀' p. 14.
- Knowles, M. S. (1977). *The Adult Education Movement in the United State*. Florida: Kreisler Publishing Co.
- Lesthaeghe, R. & Surkln, J. (1988). Cultural dynamics and economic theories of fertility change,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14, 1-45.
- Teachman, J. D., Polonko, K. A. & Leigh, G. K. (1987). Marital timing: Race and Sex Comparisons, *Social Forces*, 66(1), 239-268.

·논문 접수 9월 30일 / 수정본 접수 12월 9일 / 게재 승인 12월 24일

·교신저자: 나유미, 총신대학교 강사, 이메일 messenger1028@hanmail.net

Abstract

The Developing and Effectiveness of Pre-parents's Education Program for Childbirth-friendly Values Formation

Na, yu-mi Kim, mi-kyung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marriage values, child values, and family values among an experimental group, an comparison group, and by control group. More specifically,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wo-fold; (1) To develop the educational program on the formation of child-friendly values; and (2) To assess the effect of one's marriage values, children values, and family values through the values taught by the educational program on the formation of child-friendly.

The subjects for this study consisted of 56 Korean college students from Seoul, Korea. The child-friendly values were applied to the experimental group in order to accomplish the educational program. On the contrary, the comparative group took a the family education in order to accomplish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Finally, the control group took a any program in order to accomplish something new.

The instruments used in this study were the Marriage Values Scale which was modified and complemented by the Marriage Values Scale(Yeri Kim, 2009), Children Values Scale(Misook Kim, 2010), and Family Values Scale(Samsik Lee, Anna Kim, Serok Do, & Hongsik Yun, 2006).

This study was tried to apply the educational program on the formation of

child-friendly values to the participants one and half hours of per week for a total of 10 times. The Marriage Values Scale, Children Values Scale, and Family Values Scale were administered in order to define the values of marriage, children values, and family values. The statistical analyses related to the proposed problems were conducted an ANCOVA and ANOVA by using SPSS 18.0, and they were subjected to post-hoc Tukey's test with significance for $p < .05$.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the educational program on the formation of child-friendly values did not influence values of marriage and the family values.

But, the educational program on the formation of child-friendly values affects affirmative children values, affirmative children values of personnel, and negative values of social aspects.

Consequently, the educational program on the formation of child-friendly values turned out to encouraging affirmative realization of pre-parents to be increased on topics such as children and assisting pre-parents in realizing their values and roles as parents.

Key words: pre-parents, childbirth-friendly values, education program